

“ 네 연세가 얼마뇨? ”

■ 이종윤 원로목사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바로가 야곱에게 한 “네 연세가 얼마뇨?” 인가 자문자답을 한다.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야곱은 자신을 거주지가 없는 나그네로 방랑자 인생을 살았노라 했다. 그것은 육신적인 방랑자라기보다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미래를 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모세는 자기 날을 계수하며 본향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속히 돌아와 구원을 얻어야 한다.

우리를 주변에는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며, 환난 날에 건지시는 구원주시라” 며 간증하며 감사하며 사는 이가 많지 않고, 나잇값을 못하고 있는 지진아가 적지 않다. 세례 받은 지가 수십 년이라면서 식기도를 잊고 음식을 먹는 사람, 집사된 지 몇 십 년이라면서 항상 자기만 위하라는 사람, 설립된 지 반백 년이라면서 아직도 보조비만 요구하는 교회 등은 “네 연세가 얼마인가” 를 자신에게 물어보고 나잇값을 해야 한다. 부산발 서울행 열차가 안양역을 통과하게 되면 미구에 도착하게 될 종착역에 대비하여 내릴 준비를 한다. 잠자던 이는 잠에서 깨고 웃음을 벗어 놓았던 이는 웃을 입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흠어져 있는 보따리를 챙기고 내릴 준비를 한다. 한국발 천국행의 나그네들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네 연세가 얼마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가며 서서히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는 출발역보다 종착역이 더 가깝듯이 산날보다 살날이 더 짧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너희가 야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풍요에 겨워하던 부자는 마침내 화려한 청사진을 그려 보았다. 현재의 창고를 헐고 터를 더 넓게 닦아 큰 창고를 보다 많이 세워 거기에 여러 해 동안 먹을 곡식을 쌓아 두고 오래오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으나 그날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환을 당했다면 그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백 년을 넘기지 못할 주제에 만년을 꿈꾸고 살면서 죽음이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홀연히 독수리에 채어 가는 서리 병아리처럼 죽음의 급습을 당하는 인생이다. 모름지기 네 연세가 얼마인가를 자신에게 물어가며 허황한 생각을 버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인생이란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가 없고 더구나 의지 할 상대가 못되기 때문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나고 손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목자장 되신 하나님, 압박장에서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효과적 간증이 있는 삶을 산 야곱처럼 파란만장했던 2018년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 긍휼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625호] 2019년 1월 5일 발췌-

| English Worship Service | |
|---------------------------------------|--|
| [Room 802, 11:20 am] |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 * Call to Worship | John 4:24 Presider |
|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 * Doxology | 1 Congregation |
|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Kichan Yoo |
| Hymn | 2 Congregation |
| Scripture Reading | Psalms 38:1-22 Presider |
|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
| Offering | Congregation |
| * Offering Hymn | 50 Congregation |
| * Offering Prayer | Presider |
| Anthem | Congregation |
| Sermon | "I Wait for You" Pastor |
| * Hymn | 263 (I hear the Savior Say) Congregation |
| * Benediction | Pastor |
| * Lord's Prayer Song | 635 Congregation |
|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의 비전 (vision)</p> |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교회 QR코드</p> |
|---|--|--|

| | |
|--|--------------------------------|
|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p> | <p>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p> |
| <p>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찬홍성임(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타이완), 필리핀,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영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p> | |

| | |
|--|--|
| | <p>천국시던 양성·판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
|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p> | <p>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p> |

“ 거룩한 교회,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

■ 히 13:12-16, 합 3:2
올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를 주제로 삼고, 서울교회는 “거룩한 교회,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1. 거룩한 교회란?
1)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식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보다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독촉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드리는 기도를 드러야 합니다.
2)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는 영광과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3) 거룩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 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4) 거룩한 교회는 여호와와 나의 힘이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해야 합니다.
5) 거룩한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는 교회라야 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전 6:19).

2. 민족의 구원선이란?
세상의 교회는 점점 세속화 되어가고 있고 교인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여서 2010년 285만 2311명에서 불과 6~7년 사이에 무려 114만명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신자감소의 원인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등에 빠진 교회가 방향을 잃고 헤매므로 민족의 구원선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무관심 현상이 증가되고, 개인의 행복추구, 여가선용을 즐겨하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과 현실을 주도 함으로 인해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었고, 심지어 주일학교를 폐교 시키는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인구의 저출산화와 고령화 까지 이어지다 보니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 역시 1위가 불교, 2위가 천주교, 3위가 기독교 라고 하니 이대로 나간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민족의 구원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곳이라야 합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킬 당시 기독교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1~ 1.5%인 20만 ~ 30만 명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 정의, 평등을 외치는 우리나라의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과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걸쳐 비교해 보면 3.1만세 운동이 발생된 지역과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정확하게 일치되었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회는 독립과 만세운동의 근거지였으며, 또한 민족대표 33인중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음도 교회가 민족의 구원선의 역할에 충실했음의 증거입니다.

맺는 말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는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의 시련과 고통이 미래에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 주는 축복의 기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교회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서 찬양과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민족의 심자가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사명을 감당하며 민족의 구원선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거룩한 교회가 됨으로 민족의 구원선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 예배

찬양 예배

| Sunday Worship Service | | |
|------------------------|---------|--------|
| 시 간 | 인 도 | 기 도 |
| Time | Prsider | Prayer |
| I 오전 9시 | 서명철 목사 | 임상현 장로 |
| II 오전 11시 20분 | 서명철 목사 | 하인선 장로 |
| III 오후 2시 | 조원영 목사 | 인 도 자 |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김의창 목사

목 도 다 함 계
 성 시 시 4:3-5 인 도 자
 찬 송 28(28) 다 함 계
 기 도 김규태 집사
 성 경 시 32:1-1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복이 있다" 설 교 자
 * 찬 송 288(204) 다 함 계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계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3:3-4...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3(2).... 다 함 계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계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3(시 4)... 다 함 계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계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452(505)... 다 함 계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 37:1-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계
 봉헌 Offering 다 함 계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계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계
 설 교 Sermon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장석남 목사
 (God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 찬 송 Hymn312(341)... 다 함 계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계

수요 예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장호림 권사
 성 경 삼상 28:3-2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에게 대답하지 마하시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원, 박수강, 김복희

설 교 서명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 | | | | | | | |
|--|------|-----|--------|-------|--------|---|-----|-------|
| 찬 양 대 | | | | | 헌 금 송 | | | |
| 예 배 | 찬양대 | 지휘자 | 오르가니스트 | 피아니스트 | 팀파니스트 | 찬양대 | 지휘자 | 피아니스트 |
| I 부 | 가브리엘 | 백경화 | 박준호 | 박승기 | 윤주일 | 가브리엘 | | |
| II 부 | 할렐루야 | 류충기 | 차주연 | 김양언 | 윤주일 | 그레이스핸드벨 | 송재월 | |
| III 부 | 임마누엘 | 유태왕 | 김윤지 | 이주희 | 윤주일 | 아멘관현악단 | 임범창 | |
| 찬양예배 | 베들레헴 | 임범창 | 안효주 | 박수강 | 윤주일 |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원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 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 3:2) | | |
| 영어예배 | 예루살렘 | | | | | | | |
| 수요 I 부 | | | | | 지난주 성구 | | | |
| 수요 II 부 | 호산나 | 구민영 | 김윤지 | 홍혜란 | | | |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일 예배 | I 부 예배 | 오전 9시 | |
| | II 부 예배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11시20분 | 8층(802호) |
| 수요 예배 | II 부 예배 |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
| 새벽 기도회 | | 오전 5시 30분(월 - 토) | 본당 |

교회소식

◆ 모임

1. 선교회, 전도회 연합월례회 / 13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
2. 임시당회 / 16일(수) 수요예배 후 104호
3. 5교구 전체 모임/ 19일(토) 오전 11시30분 돌에서화로구이(인덕원점) 4호선 인덕원역 1번 출구

◆ 알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
| <p>앞면에서 계속</p> <p>12. 의료 상담 / 이변주 상담은 이경진(성형외과), 최용준(한방)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이종욱(진검), 김동준(내과)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
|---|

지난주 출석현황

| 주일1,2,3부 | 찬양예배 | 교회학교 | 주일예배 합계 | 수요예배 |
|----------|------|------|---------|------|
| 989명 | 296명 | 192명 | 1,477명 | 142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1/6)

(단위 : ₩)

| 월 일 | 적 요 | 수 입 | 지 출 |
|-------|---------|------------|-----------|
| 1월 6일 | 헌 금 | 42,762,410 | |
| | 구 제 비 | | 1,000,000 |
| | 출 판 비 | | 710,000 |
| | 복리후생비 | | 112,900 |
| | 통 신 비 | | 1,467,330 |
| | 수도광열비 | | 274,560 |
| | 차량유지비 | | 999,540 |
| | 소 모 품 비 | | 1,390,280 |
| | 환경유지비 | | 50,000 |
| | 수선유지비 | | 497,000 |
| | 식당운영비 | | 932,410 |
| | 합 계 | 42,762,410 | 7,434,020 |